

“대비심처럼 찬란한 것은 없습니다”



고은 시인
본지 논설고문

북아메리카 상공에서의 감회

기묘 초파일에 부처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빈 몸 빈 마음의 허공 하나에
사랑을 가득채운 사람이 부처님

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탐욕이 없는 세상이 그들 원주민의 자연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맛마리씩 잡아먹는 살생 없는 버팔로가 번식해서 그 숫자가 많아지면 그놈들이 물어먹을 풀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라 끝내는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놈들의 살 곳이 죽을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때는 몇년이 회생되어가면서 버팔로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확보되는 일을 그들과 같은 운명체인 인디언이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시절을 지나서 대서양을 건너온 백인의 총소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옛 인디언들은 자연 그대로의 법도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나 다른 생물의 삶은 이러한 인디언과 다를바 없이 먹을 것과 거처할 공간을 최소한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이나 바람 공기 그리고 강과 언덕이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이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빌려 쓰는 공공의 무대이지요. 그런 대지를 인간은 소유물로 만들어 마침내 세계를 큰 나라, 작은 나라와 문명과 야만이란 차별지어서 소유만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진지하게 지적해야 할 종교는 어떨습니까. 토론토에 와서 한국 교민 5만인데 그 숫자는 본국 회사

사원이나 유학생까지 망라한 것입니다. 그런 5만명 상대의 개신교 교회가 150개가 넘습니다. 일본 교민에게는 교회가 단 2개밖에 없다 합니다. 많은 것이 좋을까요? 옛 중국에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이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높은 가치와 품위, 그들이 말하는 군자(君子)가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었지요.

나는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크나큰 재앙을 몰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이기주의와 함께 있다면 종교일 수 없습니다. 종교는 내주어야 합니다.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바꾸는 운동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진짜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강경> 없이도 나를 죽여 모두가 되고 텅 빈 허공이 되고 그 허공에 꽃 피어 송이 피어나는 것이 <금강경>의 본래 면목이겠습니까. 어디 다른 종교만 그럴습니까. 우리 불교 집안에도 이런 이기주의의 뿌리가 해묵은 채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도 미국 텔레비전 CNN이 말한 그대로 돈이 그 원인이었는지 모릅니다. 돈과 함께 있는 권력이 그 원인인지 모릅니다. 그런 현세적인 힘이 부처님의 법과 하나로 둔갑한다면 그런 놈의 법을 때려부수는 일이 정녕 불법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불교계는 너무 많은 불상과 불당축조로 뜻있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



그림 · 박구원

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세생생 비원을 통한 부처님의 세상에 다가가는 신심이 기보다 종교가 얼마나 현세적인 탐욕의 다른 이름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 인간적인 것을 바랍니다. 너무 많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인간사회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눈물과 웃음을 서로 나누는 일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었지요. 인간이 좀 더 나은 본성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거룩한 것은 없었지요. 인간이 수많은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대비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찬란한 것은 없었지요.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2천5백년전 인도 아리인의 피를 받은 한 구도자임에 틀림없지만 그이는 그 누구보다 못 숙음을 슬피 운 사람입니다. 지옥을 울

고 아귀를 울고 이수라를 운 사람이 곧 부처님입니다. 그 자신은 어떤 부귀도 모르고 빈 몸 빈 마음의 허공 하나에 사랑을 가득 채운 사람이 부처님 아닙니까.

나는 요즘 인간보다 짐승들을 훨씬 섬깁니다. 아니 부처보다 짐승을 더 섬깁니다. 짐승이란 어리석은 것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제 탐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것을 세상에 그대로 두는 생명이 짐승이지요. 다람쥐나 사자는 먹이를 채운 뒤 따로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죽이는 일도 그 죽을 없으면 다른 삶의 법칙이 해제되기 때문에 하늘 아래의 도리와 부합된 먹이사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격이 있는 명사나 어

떤 현자 그리고 상인을 받드는 것보다 이런 짐승들을 내 스스로, 내 부처님으로 여겨서 나도 그런 자연의 산 일곱에 가까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불교의 무아·무심·공·묘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의 친구들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가난의 부(富)입니다.

나는 종교의 존재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종교가 발달해서 그것만이 관치는 사회를 병든 사

작년 조계사 사태는
큰공부 할만한
정진바라밀의 씨앗
물욕·권세욕 버리고
새 일주문 세우자

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를 의식하지 않은 세상이 가장 종교적인 세상일 것입니다.

한국불교 유교의 탄압 아래에서 산중의 호젓한 밤으로만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올 때 그 뱃속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 안빈의 체함을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물욕과 권세욕의 일주문을 쓰러뜨리고 거기에 천고의 빈 몸으로 다시 출가하는 새 일주문을 세우시오. 아니 그런 문조차 세울 까닭이 없이 이 세상 도처가 일주문이요. 대웅전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내에게는 한동안은 밤의 소꿉새이고 낮의 지렁이입니다. 영경귀 즐기입니다. 귀의불!

고은 시인은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최근 버클리대학에서 불학기 강의를 미쳤다. 이 글은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학 초청강연과 시 낭송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썼다.

●연락처: 10 Fernald Dr. #30 Cambridge, MA 02138 USA
Prof. Ko Un

●전화·팩스: 617-497-3973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이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살장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화선원

주 지 석청암
신도회 일동
금화선원신도회
불교교양대학각기동문·거사림회

■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63-146
장승빌딩 403.404호
TEL : (02)823-9135~6
FAX : (02)823-9134

문화재수려·단청기능·708호도금기능 821호
행화·단청·불상조성

한국불교미술원

원 장 정규진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TEL : (02)730-8072(야)648-0930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 중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TEL : (02)732-1206~8 FAX : (02)732-1207

전국신도회

회 장 선진규
사무총장 김재일

회 원 일 동

■ 서울시 견지동 13
TEL : (02)732-7272~4 FAX : (02)732-7275

정각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대 중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 (02)742-1231

승룡사

주 지 전야옹

대 중 일 동
신도일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00-61
TEL : (02)814-7536

(사)대한불교법사회

성보사 포교원

원 장 구윤희
신도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28
TEL : (02)381-1234, 2727
FAX : (02)371-1065
능곡포교원 0344)979-0220, 02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41 태영빌딩 2층

국가 지정 제28호

목아 불교 박물관

관 장 박찬수

후원회 일동

■ 경기도 여주군 강현면 이호리
TEL : 0337)85-9952 FAX : 85-9951
목아불교미술연구소 0337)85-9954
목방목아미 0337)85-9950 FAX : 37-9951

무학사

주 지 해암

관음회 일동
무학회 일동

■ 서울시 중구 신당1동 304-188
TEL : (02)2238-8872, 2235-9900

송강기획

불교음반유통/ 이벤트기획

대 표 윤성수

직 원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TEL : (02)745-6015 FAX : (02)745-6017

한국불교태고종 전통사찰 48호

송덕암

주 지 고동우

신도회 일동·약사회 일동

■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TEL : 0445)688-2913

대한불교 조계종 기도도량

대흥산 성불사

주 지 대선

대 중 일 동

■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산60 대흥산
TEL : 0451)634-4286